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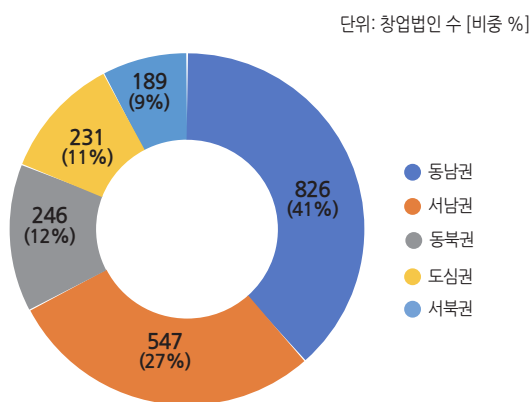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창업 동향

1) 5대 권역별

I 5대 권역별 창업현황

- 권역별 법인 창업은 동남권이 826개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서남권 547개, 동북권 246개, 도심권 231개, 서북권 189개 순으로 조사

[그림 2] 2018년 9월 권역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

- 금융업과 관광·MICE는 서남권에서, 도심제조업은 도심권에서 법인 창업이 가장 활발하며, 그 외의 모든 산업들은 동남권에서 창업이 가장 많음
- 금융업은 올해 1-8월까지 서남권에서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9월 들어 44%로 비중이 낮아짐
- 도심제조업은 도심권 다음으로 동북권, 서남권, 동남권, 서북권 순으로 법인 창업이 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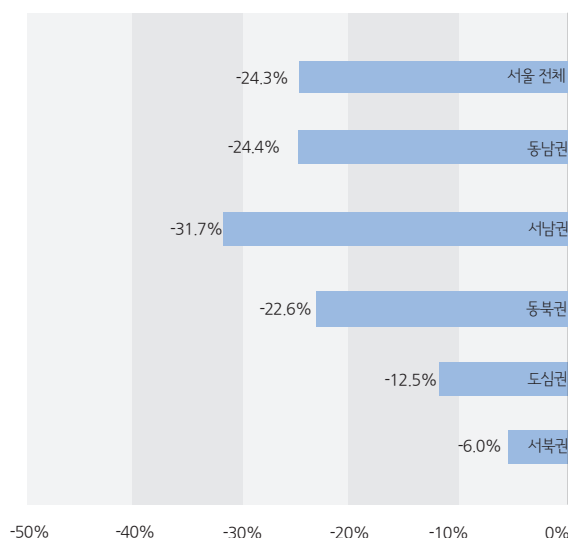
I 권역별 증감률

-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은 서남권(-31.7%)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동남권(-24.4%), 동북권(-22.6%), 도심권(-12.5%), 서북권(-6.0%) 순으로 조사됨
- 서남권은 금융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금융업 외에도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감소했으나 관광·MICE 법인 창업은 크게 증가
- 서울 법인 창업에서 약 40%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권은 6~8월의 창업 부진에 이어 9월에도 큰 감소세(-24.4%)를

기록

- 동남권은 도심제조업,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감소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은 급증
- 동북권, 도심권, 서북권 모두 주요 산업 대부분이 감소한 가운데 동북권은 비즈니스서비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, 도심권은 도심제조업, 바이오메디컬·녹색·디자인 및 패션 등에서, 서북권은 IT 융합, 콘텐츠 등에서 법인 창업이 크게 증가

[표 2] 2018년 9월 권역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

2) 자치구별

I 자치구별 창업현황

- 자치구별 법인 창업은 강남구가 448개로 가장 많고, 그 외 서초구 218개, 영등포구 207개, 마포구 135개, 송파구 119개, 중구 107개, 금천구 105개 순
- 금융업은 영등포구에서, 도심제조업은 중구, 관광·MICE는 영등포구에서 법인 창업이 가장 활발하나 나머지 산업들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창업
- 구로구와 금천구는 IT융합의 법인 창업이 가장 많으며 강서구, 마포구, 서초구, 송파구는 도소매업 다음으로 IT융합 창업이 가장 활발
- 강남구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법인 창업이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IT융합과 도소매업 창업이 활발

- 영등포구, 종로구, 중구는 금융업 법인 창업 건수가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(207개)는 금융업(228개) 전체 창업의 91%를 차지

[표 3] 2018년 9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

